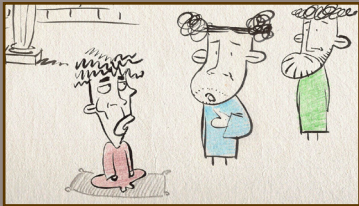


못 걷는 아저씨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나레이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문 곁을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못걷는아저씨

한 푼 줍쇼~ 한 푼만 줍쇼~

나레이션

못걷는아저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못걷는아저씨 앞에 멈춰서요. “우리를 좀 보세요~”하고 말했습니다.

못걷는아저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도 말고 그냥 밥이라도 한끼 사먹게 조금만 주십시오~ 네?

베드로

저는 아저씨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못걷는아저씨

뭐여? 돈이 없어? 아 나 원 참...

베드로

저에게 돈은 없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못걷는아저씨

뭐하는 거요 지금! 어??? 뭐야? 지금 내가 일어난거야? 내가? 내가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어났어! 내 다리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잖아!??

나레이션

못걷던아저씨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다리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꺾충꺾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사람 1

아니, 저 사람,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 아니야?

사람 2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냐? 맨날 앓아만 있었잖아...

사람 3

아니 저 사람 그 앓은뱅이 맞는 것 같은데 응?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신기하네!

못걷는아저씨

맞아요! 내가 바로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앓은뱅이요. 하지만 이 두 분이 나를 일으켜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 1

와, 진짜요? 저 사람들 대단하네. 저 사람들이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레이션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무슨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로마군인에게 넘겨주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순순히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나레이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